

〈雙花店〉의 시상구조와 소재의 의미*

황보 관**

— <차 례> —

1. 서론
2. 시상구조의 의미
 - 1) 시상구조
 - 2) 조흥구
3. 소재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쌍화점>에 대한 연구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시상구조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된 <쌍화점>의 기본 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쌍화점> 속의 소재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 연에 걸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쌍화점>의 시상구조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제시보다는, 암시적인 표현, 행간을 통한 사건의 제시, 성관계와 관련된 상황들을 암시하는 조흥구의 제시 등을 통해, 독자가 작품 속의 성적 행위에 대해 상상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상구조를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쌍화점>의 소재들은, 사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이색적인 성행위, 그것에 대한 은밀한 엿보기, 소문 등을 독자가 상상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긴밀히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쌍화점>은 작품 전편에서 시상구조와 소재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성적인 담화가 주는 재미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

* 본 논문은 서울인문학장학금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 서강대 박사과정

주제어 <쌍화점>, 시상구조, 조흥구, 소재, 암시, 성, 웃음

1. 서론

고려가요 <雙花店>과 관련된 기록은 먼저 『高麗史』 卷71 樂志, 『高麗史節要』 卷22, 『及庵先生詩集』 권3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쌍화점>의 제 2연 중에서 조흥구를 제외한 ‘1~4행’이 漢譯되어 <三藏>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이 중 『고려사』 악지와 『고려사절요』의 기록에는 <三藏>의 창작 및 향유 상황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삼장>은 충렬왕 代에 지어진 것으로, 궁중 연회에서의 즐거움을 돋우기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의 문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쌍화점>의 가사가 실려 있는데, 『樂章歌詞』와 大樂後譜에 <쌍화점>의 한글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 김만중의 『西浦集』 卷2 樂府에는 <삼장>의 한역 가사가 실려 있다. 그리고 『成宗實錄』 卷240 21년 5월 21일 조1), 주세붕의 『武陵雜稿』 卷之五 原集 書「答黃學正仲舉」²⁾, 이황의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跋「書漁父歌後」³⁾ 등에는 <쌍화

1) 命西河君任元濬 武靈君柳子光 判尹魚世謙 大司成成倪 刪改雙花曲履霜曲北殿歌中淫褻之辭 至是 元濬等撰進(서하군 임원준·무령군 유자광·판윤 어세겸·대사성 성현 등에게 <쌍화곡> <이상곡> <북전가> 중에서 음란한 기사를 고쳐 바로잡으라 명하였는데, 이때 와서 임원준 등이 지어 바쳤다)

2) 今之爲歌者 多出於桑濮 如雙花店清歌之屬 皆誘人爲惡 (지금의 가악이라는 것은 흔히 음란한 풍속에서 나왔으니, <쌍화점>과 청가의 종류들은 모두 사람을 악하게 되도록 유도합니다)

3) 頃歲 有密陽朴浚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靡不哀集爲一部書 刊行于世 而此詞與霜花店諸曲 混載其中 然人之聽之 於彼則手舞足蹈 於此則倦而思睡者 何哉(근년에 밀양에 박준이라는 자가 있어, 衆音을 아는 것으로 이름이 있는데,

점>의 가사 없이, <쌍화점>의 음란성 또는 오락성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쌍화점>과 관련한 기록들을 고려했을 때, <쌍화점>은 그것의 제2연의 '1~4행'에 해당하는 <삼장>이 지어진 이후인 고려시대 어느 시기에, '5~6행'과 조흥구가 첨가되고 '4연'으로 확장되어 성립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성립된 <쌍화점>은 고려 후기부터 적어도 조선 전기까지는 궁중의 연회와 민간에서 음란성 또는 오락성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쌍화점> 향유 당대 사람들의 <쌍화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쌍화점>을 '성적인 의미'가 담긴 작품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의 연구자들 또한 대체적으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쌍화점>에 대한 논의를 하여왔다.

<쌍화점>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쌍화점>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찰보다는, <쌍화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면서 <쌍화점>과 관련한 다채로운 시각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쌍화점>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것이 가지는 '시상구조'에 대한 고찰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쌍화점> 자체의 어떠한 측면 때문에 그것이 몇 백 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향유되었는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쌍화점>의 시상구조에 대

무릇 동방의 음악에 연관이 있는 것이면, 혹 아정된 것이나 혹 속된 것이나, 모으지 않음이 없이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세상에 간행하였다. 이 가사(<어부사>)는 <쌍화점> 등 제 곡과 함께 혼재하여 실려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고서 저 것(<쌍화점>)에는 손은 춤추고 발은 구르면서도, 이 것(<어부사>)에는 지켜워하고 즐기도 하니 어찌된 것인가

한 세밀한 고찰을 통해 시상구조의 어떠한 측면이 독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쌍화점>은 각 연마다 동일한 시상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각 연마다 등장하는 소재들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매 연마다 변화하는 소재는, 시상구조가 구현하는 작품의 의미 위에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소재원이 이용되는 방식을 세심히 분석하는 일, 달라진 모든 부분을 상세히 관찰하고 해석해 내는 일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작품과 더 나아가서는 시적인 면의 본질에 대한 풍부한 인식을 약속해 주기⁴⁾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쌍화점>의 시상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게 될 <쌍화점>의 기본 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쌍화점> 속의 소재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소재의 어떠한 면이 <쌍화점>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향유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시상구조의 의미

1) 시상구조

<쌍화점> 전편은 다음과 같다.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신던
 回回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슴미 이 店 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4) 볼프강 카이저, 김운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예림기획, 1999, 83면.

쪼고맛감 샷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려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디기 텃거츠니 엷다

三藏寺에 블 혀라 가고신던
그덜 社主 |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숨미 이 덜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쪼고맛간 샷기 上座 | 네 마리라 호리라
더려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디기 텃거츠니 엷다

드레우므레 므를 길라 가고신던
으뭇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숨미 우물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쪼고맛간 두레바가 네마리라 호리라
더려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디기 텃거츠니 엷다

술폴지비 수를 사라 가고신던
그짓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슴미 이 집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식구비가 네마리라 호리라
 더려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그 잔디ᄃ티 뚫거츠니 업다

이러한 <쌍화점>은 각 연에서 동일한 시상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조흥구를 제외하고 총 6행으로 이루어진다.

- (1행) A에 B 하러 가고신딘
- (2행) C가 내 손모글 주여이다
- (3행) 이 말슴미 이 A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 (4행) 죠고맛간 D 네마리라 호리라
 (더려동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 (5행)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 (6행) 그 잔디ᄃ티 뚫거츠니 업다⁵⁾

(1행)에서는 시적화자가 ‘A에 B 하러 간’ 하나의 사건이 제시된다. 이어서 (2행)에서는 A의 주인이며 남성 혹은 남성의 이미지를 지닌 C가 시적화자의 손목을 쥐는 사건이 제시되어, C와 시적화자 간에 성적인 접촉

5) 이러한 <쌍화점>의 구성 형식의 설정은 김대행의 구성 형식 설정을 참조한 것이다. 한편, 김대행은 <쌍화점>의 반전구조에 주목하면서, 그 반전의 의미를 본능적인 성적 욕구 편향에서 본질적 성찰로의 전환으로 보았다(김대행, 『쌍화점과 반전의 의미』,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6, 193-207면 참조.)

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남성, 혹은 남성적 이미지의 C는 먼저 손을 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적화자는 수동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손을 잡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3행)에서는 화자가 (1행)과 (2행)에서의 사건이 소문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4행)에서는 그 사건이 소문이 난다면, 화자는 그 소문을 퍼트린 주체를 ‘조그마한 D’로 설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화자는 D에게 다소 위협적으로 말하고 있어 그 소문이 화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음을 암시한다. 또 (3행)과 (4행)에서의 화자의 진술을 보았을 때, (2행)과 (3행) 사이의 행간을 통해 이루어진 C와 시적화자간의 성적 접촉은 은밀하고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행)에서는 ‘나도’라는 표현을 통해 새로운 화자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화자를 (1행)~(4행)의 시적화자와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1행)~(4행)의 시적화자를 ‘갑녀’로 표시하며, (5행)에서 새롭게 등장한 시적화자를 ‘을녀’로 표시한다. 을녀의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라는 표현 중 ‘자러’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는데, 이러한 표현은 (2행)의 ‘손목을 쥐다’라는 표현과 서로 호응하여 (2행)과 (3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A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다. 그리고 을녀에게까지 C와 갑녀 간의 성적 행위가 알려진 것으로 보아 (4행)과 (5행) 사이에는 A에서 있었던 성행위에 대한 소문이 ‘조그마한 D’에 의해 퍼지게 된 사건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그마한 D’가 성관계의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소문냈다는 것은 D가 성관계를 은밀히 엿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은밀한 엿보기가 있었다는 것을 (4행)과 (5행)의 행간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성관계 장

면과 함께 ‘조그마한’이라고 표현된 어린 꼬마의 이미지의 D가 그것을 엿보는 장면까지 상상하게 한다. 또 을녀가 적극적으로 C와 동침하러 가겠다고 함으로써 C의 성적 능력이 상당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C의 성적 능력에 대한 소문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퍼져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행을 거듭할수록 C와 갑녀에 의해 이루어진 성적인 사건을 인지한 사람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파생되고 있다. (1행)~(2행)에서 성관계를 아는 사람은 오직 당사자 두 사람 뿐이다. 그리고 (3행)~(4행)에서는 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 그것을 엿본 ‘조그마한 D’가 추가된다. 그런데 (5행)에 이르러서는 성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져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여인 을녀가 C와 성관계를 맺으려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듯 <쌍화점>에서는 (1행)에서 (5행)으로 시행을 거듭할수록 성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쌍화점>의 시상이 성적인 의미의 증대를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독자는 이러한 시상구조를 접하며 이후의 시상 전개에서 이러한 성적 의미가 어떠한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6행)의 해석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덥거츠니’의 의미이다. 사전적 의미로 ‘덥거츰다’는 ‘덩거칠다’의 옛말인데, ‘덩거칠다’의 사전적 의미는 ‘풀이나 나무의 덩굴이 뒤엉켜 거칠다’와 ‘사람의 생김새나 행동 따위가 매우 거칠다’⁶⁾이며, 이 중 후자의 의미를 <쌍화점>에서의 ‘덥거츠니’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 그런데 ‘거칠다’의 사전적 의미 중 여기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참조. 한편 북한어에서의 ‘덩거칠다’의 의미는 ‘성미나 솜씨 따위가 세밀하지 못하고 거칠다’이다(위의 URL).

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일을 찬찬하거나 아무지게 못하고 대충대충 함부로 하다’와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다’를 들 수 있다⁸⁾. 이러한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을 (6행)의 해석에 적용시켜보더라도, (6행)에서 읊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C의 성적 능력이 좋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행)~(5행)에서 행을 거듭할수록 성적인 흥미를 증대시키던 시상은 (6행)에 이르러 갑작스런 반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의 성적 능력이 상당한 것이라는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지며¹⁰⁾ 이로 인해 C는 회화화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시상이 전개될수록 C의 성적 능력에 대해 관심을 증가시키던 독자는 (6행)에 이르러 C의 성적 능력이 소문과 달리 좋지 못한 것이라는 반전을 접하며 웃음을 터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6행)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 화자

7) 기존의 ‘덥거츠니’에 대한 어석으로는 ①‘덥거츰-답답하다’(양주동, 『여요전주』(을유문화사, 1985), 266-267면) ②‘憂鬱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74, 325면) ③‘거칠고 지저분한 것이’(박병채, 『고려가요 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68, 250면.) ④‘울창하다’, ‘무성하다’(최미정, 『고려가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202면) 등이 있다.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앞의 URL) 참조

9) ‘거칠다’의 의미 중,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다’는 의미로 (6행)을 해석할 경우, ‘C의 성적 능력의 우수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행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강함과 부드러움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성행위에 있어서 남성의 강함 일변도는 상대 여성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6행)에서 읊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C의 성적 능력이 좋지 못함’이라고 할 수 있다.

10) C의 성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잘못 소문난 것은, 그 성행위의 목격자가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지닌 ‘조그마한 D’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보통 성적 능력의 뛰어남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가 퍼트린 성행위에 대한 소문은 사실과 다를 여지가 많은 것이다.

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갑녀는 (5행)의 화자인 을녀와 달리 남녀 간의 성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6행)의 진술의 주인공으로 적합하다 할 수 없다. 또 <쌍화점>의 각 행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볼 경우¹¹⁾, 각 문장들은 그 사이사이에 사건들이 생략된 채로 제시되고 있어 각 문장들 간에는 시간적 간격이 나타나는데, (6행)의 화자를 갑녀로 볼 경우,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5행)과 (6행) 사이가 시간적 간격 없이 연결되어 <쌍화점>의 시상구조상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1행)~(4행)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갑녀가 화자로 등장하는 것과 달리, (5행)에서는 적극적 태도를 지닌 새로운 화자 을녀가 등장하여 행간의 사건을 통해 C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5행)에 이어 (6행)에서도 계속 적극적인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쌍화점>의 시상구조에서는 성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암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행간을 통해서도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이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과 행간을 통한 암시 이외에 <쌍화점>의 사건의 주요 주체인 C의 성적 능력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품에서 C의 직접적인 진술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 독자는 갑녀와 을녀의 진술을 통해서만 그의 성적 능력을 ‘상상’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갑녀와 을녀의 진술을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C의 성적 능력은 처음에는 여자들을 매혹시키기는 상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다가, 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실망스러운 것으로 암시된다¹²⁾.

11) 각 행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 : (1행)~(2행)’, ‘둘째 문장 : (3행)~(4행)’, ‘셋째 문장 : (5행)’, ‘넷째 문장 : (6행)’

12) 지금까지 살펴 본 <쌍화점>의 시상구조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매 연에 걸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쌍화점>의 시상구조는 이렇듯 성행위와 관련한 사건들을 행간들을 통해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행위와 같은 은밀하게 주고받아야 하는 메시지일수록 그것을 전달하는 코드는 고도의 암시성과 상징성 속에 가려져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성기와 성행위에 관련한 어휘는 우리 모두에게 암호화되어 있다. 따라서 성은 표현과정에서는 암호화된 코드로 숨기는 것이면서도 실제적 정서 속에서는 누구든 민감하게 추구하는 것이므로 상징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나타내어야 코드를 해석하는 연상과정 속에서 정서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¹³⁾. 이러한 까닭으로 <쌍화점>은 성관계의 직접적인 제시보다는, 암시적인 표현, 행간을 통한 사건의 제시를 통해 독자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이를 통해 시상전개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조흥구

<쌍화점>에는 조흥을 위한 요소인 조흥구가 세 번 등장하는데, (3행)과 (4행) 사이의 ‘다로러거디러’와 (4행)과 (5행) 사이의 ‘더러등성 다리러

행	화자	사건	사건의 드러냄/감춤
(1행)~(2행)	갑녀	A에 B 허러 간 갑녀가 C에 의해 손을 잡힘	드러냄
행간1		C와 갑녀 간의 성관계	감춤
(3행)~(4행)	갑녀	갑녀에 의한 소문의 가정과 D에 대한 위협	드러냄
행간2		C의 성적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과 함께, C와 갑녀 간의 성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짐	감춤
(5행)	을녀	을녀에 의한 C와의 성관계에 대한 의지 표명	드러냄
행간3		C와 을녀 간의 성관계	감춤
(6행)	을녀	C의 성적 능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남(반전)	드러냄

13) 임재해, 『우리 시대 육담들에 나타난 ‘성’의 형상화와 ‘성’문화의 양상』, 김선풍 외, 『한국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73면.

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5행)과 (6행) 사이의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흥구들은 악기 소리를 본뜬 口 흡으로서, 그 자체로는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율격적 구성에 한 요소로 참여하지 않는 비시적 부분인데, 이는 음악적 실연을 위한 장치이다¹⁴⁾.

이렇듯 <쌍화점>의 조흥구는 음악적 목적을 위해 설정되어 의미를 담지하고 있지는 않아 <쌍화점>의 의미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행간을 통해 성적인 사건들이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쌍화점>에서, 그러한 행간에 위치하는 조흥구는 행간의 사건들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쌍화점>이 가창될 시에, 조흥구를 통한 음성상징을 통해 행간의 상황을 암시해준다면 그것의 독자는 그 다음 시상의 전개를 더 큰 흥미를 가지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쌍화점>의 조흥구의 음절수를 살펴보면, (3행)과 (4행) 사이에서는 ‘6음절’, (4행)과 (5행) 사이에서는 ‘23음절’, (5행)과 (6행) 사이에서는 ‘11음절’로, 총 40음절의 조흥구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각 음절은 두 개의 음절(‘둥’, ‘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성에서는 ‘ㄷ(14회)’, ‘ㄹ(20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¹⁵⁾, 그것들이 교차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폐쇄음인 ‘ㄷ’과 유음인 ‘ㄹ’의 교차적인 반복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교차되는 느낌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김열규에 의하면, <쌍화점>에서는 ‘ㄷ·ㄹ’의 交錯音群이 많이 나타나며, 국어에서 ‘ㄷ·ㄹ’의 交錯音群은 여러 의성·의태어를 형성한다¹⁶⁾고

14) 성호경, 『고려시대 시가 작품의 시적 형태 복원』, 고려시대 시가연구, 태학사, 2006, 43-4면 참조.

15) ‘ㄱ’-3회, ‘ㅇ’-2회, ‘ㅅ’-1회

16) 이것에 대한 예로는 ‘드르르’, ‘두르륵’, ‘드르릉’, ‘달달(덜덜)’, ‘다락다락’, ‘달달(들들)’, ‘돌돌’, ‘뚜드럭’, ‘덜렁’, ‘달랑달랑’ 등을 들 수 있다.(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

한다. 이들은 대개 진동이나 動搖를 더불은 회전운동 및 流動상태와 그에 따른 소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때,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아울러 시사하고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동요하는 듯한 회전운동을 일깨우는 감각을 수반한 자음군이 淫慾의 열락과 그에 짝지어질 노래의 흥을 돋우어 줄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¹⁷⁾.

한편 중성에서는 ‘ㅏ(7회)’, ‘ㅑ(5회)’, ‘ㅓ(16회)’, ‘ㅣ(7회)’ 등이 다수 등장¹⁸⁾하며, 초성과 마찬가지로 교차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중성에서의 몇 개의 소리들의 반복적이면서도 교차적인 제시는 초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동작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이 <쌍화점>의 조흥구는 소리의 반복을 통해 강한 동작과 부드러운 동작이 교차하며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성적인 사건이 암시되어 있는 행간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쌍화점>의 조흥구는 행간의 성적인 사건들을 음성상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행위에서는 강한 동작과 부드러운 동작이 모두 중요시되며, 그러한 동작의 반복적인 교차를 통해 성행위는 이루어진다. 따라서 <쌍화점>의 조흥구는 이러한 성행위의 강한 측면과 부드러운 측면의 반복적 교차를 음성상징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각의 조흥구는 길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3행)과 (4행)의 사이에는 ‘6음절’의 상대적으로 짧은 조흥구가 위치한다. 그리고 (3행)에서는 겁녀가 소문이 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반], 김열규, 정연찬, 이재선,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46면.)

17) 김열규, 위의 글, 46-7면 참조

18) ‘ㅓ’-2회, ‘ㅑ’-2회, ‘ㅏ’-1회

(4행)에서는 그 가정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의 겁녀의 대응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1행)과 (2행)에서 C와 겁녀 간에 일어난 사건은 그 둘 간의 성적인 접촉이며, 이는 (3행)에서 겁녀가 가정한 소문의 내용의 핵심이다. 그런데 (1행)과 (2행)에서는 이러한 성적인 접촉이 'C가 내 손모글 주여이다'라고 하여 다분히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위치하는 조흥구 '다로러거디러'는 가정한 소문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명확히 암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서의 조흥구는 가정한 소문의 핵심 내용인 성행위에 대한 음성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6음절의 짧은 조흥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겁녀가 가정한 소문의 성행위는 C와 겁녀 간의 실제 성행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가정된 것이기에, 긴 음절의 제시를 통한 성행위의 긴 시간의 설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행)과 (5행) 사이에는 23음절로 이루어진 긴 조흥구가 위치한다. (4행)과 (5행) 사이의 행간에는 성관계가 실제로 소문나는 상황이 암시되어 있는데, (5행)에서 그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성관계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소문이 난 것이 된다. 성관계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에는 소요시간의 길고 짧음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마련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4행)과 (5행) 사이의 조흥구의 길이가 긴 것은 소문의 성관계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에서의 조흥구는 '더러등성'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더러등성'은 흥겨운 느낌을 주는 것¹⁹⁾이다. 이를 통해서도 행간에 암시되어 있는 소문의 성관계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여중동, 「<쌍화점> 노래 연구」, 김열규·신동욱 편,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I-101면.

(5행)과 (6행) 사이의 행간에서는 C와 을녀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곳의 조흥구는 음절수에 있어 앞선 조흥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음절을 이루고 있다. 이는 (6행)에서 드러난 그 성관계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성관계의 좋고 나쁨의 판단에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C와 을녀 간의 성관계가 을녀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음을 음성상징을 통해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흥구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쌍화점>의 의미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강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음소들의 반복적 교차와, 성관계와 그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들의 길이의 차이를 둔 제시를 통해, 행간에서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건이 가지는 분위기를 더욱 강화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쌍화점>의 시상은 더욱 강조되어 독자가 느끼는 성적 인흥미는 더욱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3. 소재의 의미

문학 작품 외부에 있는 고유한 전통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작품 내용에 영향을 불러일으켜 준 것을 소재라고 부른다. 작품 전체 혹은 작품의 일부분 속에 이러한 소재원이 이용되는 방식을 세심히 분석하는 일, 달라진 모든 부분을 상세히 관찰하고 해석해 내는 일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작품과 더 나아가서는 시적인 면의 본질에 대한 풍부한 인식을 약속해 준다²⁰⁾. 본 장에서는 소재가 가지는 이러한 일반적 성격에 착안하

20) 볼프강 카이저, 앞의 책, 80-3면 참조.

여 <쌍화점>의 소재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쌍화점>은 그것의 구조에 있어서는 매 연마다 동일한 양상을 보이나, 소재에 있어서는 각 연마다 이질적인 것들이 제시된다. 이렇듯 동일한 시 상구조 속에서 매 연마다 변화하는 소재는, 구조가 구현하는 작품의 의미 위에서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소재를 살펴봄으로써 <쌍화점>에 대한 이해는 더욱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1연에 등장하는 雙花는 조리법이 중국의 만두와 같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만두가 그 명칭이 바뀌어 ‘雙花’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²¹⁾. 그리고 이러한 쌍화를 파는 쌍화점의 주인은 回回아비, 즉 回回人 남성인데, 여말 선조 한반도에서의 회회는 주로 위구르인을 중심으로 하는 무슬림 일반에 대한 통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회인이 고려로 집단적으로 이주해 온 것은 원나라의 제국공주가 충렬왕과 결혼하여 고려로 시집을 때 회회인들이 시종으로 따라오면서부터이다²²⁾. 그리고 제국공주가 충렬왕의 비가 된 것이 1274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개경에 쌍화점이 생긴 것은 최소한 1274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쌍화점은 당시 고려인들에게 이색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을 것이며, 고려인과는 다른 이목구비와 복장을 한 회회인 또한 이색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또 조선 초인 15세기 초기까지도 회회인들이 자신들의 습속과 전통의 식 보존에 대한 당국의 묵시적 보호를 받아, 토착문화와의 심각한 갈등 없이 집단생활을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²³⁾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13면 참조.

22)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1991, 124-132면 참조.

<쌍화점>이 향유되고 있던 조선 초기에도 회회인의 이색적인 모습은 당대인들에게 충분히 목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쌍화점>에서 이색적인 이미지를 가진 회회인과, 고려 여인과의 정사를 설정한 것은, 그것이 그다지 이색적일 수 없는 고려인들끼리의 정사보다 성적인 흥미를 더 잘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색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성관계 장면을 사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성적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연에 등장하는 ‘三藏寺’는 고려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찰로써, 충렬왕이 만항이라는 승려를 삼장사에 있도록 명한 기록²⁴⁾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장사에서 는 원간섭기에 국가적인 불교행사가 열린 기록이 없는 것²⁵⁾으로 보아, 삼장사는 어느 정도의 이름이 나있기는 하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던 사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국가적으로 주요사찰은 아니지만 당대인들이 인지하고 있던 사찰을 소재로 사용한 것은, <쌍화점>의 주요 향유층인 상층 계층에 속하는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비난 또는 죄책감을 피하면서도 실제 존재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사실적으로 상상하며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社主, 곧 주지승려는 근엄하고 종교적으로 성실한 이미지를 가지며 그들의 성행위는 교리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23) 이희수, 위의 책, 145면.

24) 이제현,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익재집 I』, 민족문화추진회, 1979, 207면.

25) 김창현, 「원간섭기 고려 개경의 사원과 불교행사」, 『인문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89 ~ 126면 참조.

이러한 존재의 성적 일탈, 곧 성행위 장면을 실제 존재하는 사찰을 배경으로 떠올리는 것은 성적인 호기심을 더욱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연에서는 우물용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의 용은 우물에 거처하며 인간인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기이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용이 우물에 존재한다는 인식은 아주 오래되고 광범위한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혁거세왕 대에 용 두 마리가 금성 우물 속에서 나타났다는 기록과 신라 경문왕 대에 용이 왕궁의 우물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²⁶⁾. 또 어느 마을에서나 언제든 농악대가 우물 곁을 지날 때에는 그 우물에 들러 우물 주위를 빙빙 돌며 농악을 그치고 나서 상쇠잡이가 우물을 향하여 비를 바라는 내용의 기원을 행한다²⁷⁾고 한다. 이러한 용과 우물과의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龍井’이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龍井洞’, ‘龍井里’라는 지명은 남한에 서만 13곳이 확인²⁸⁾된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에도 ‘龍井’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는 용이 우물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광범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용이 인간인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인식 또한 오래된 것이다. 한나라 고조²⁹⁾와 백제 무왕³⁰⁾이 용과 그들의 모친과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 때 용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정

26) 김부식, 이재호 역, 삼국사기1, 서울출판사, 1997, 37면 참조.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13면.

28) ‘龍井’이라는 지명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동해시, 충남 천안시(2곳),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포천시, 전남 고흥군, 전남 무안군,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시, 전북 임실군, 전남 구례군(두산엔사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참조).

29) 사마천, 정범진 외 역, 사기1-본기, 까치, 2003, 253면 참조.

30)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1, 서울출판사, 1997, 303-4면 참조.

되어 남성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용이 우물에 존재한다’라는 것과 ‘용이 인간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두 의식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쌍화점>의 3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이 등장한 것은, <쌍화점>의 시상구조와 다른 연들과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용이 지니는 숭고함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용이 가지는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의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가 남성의 강인한 육체, 곧 성적 능력의 우수함³¹⁾으로 연결되어, 용이 독자의 성적 흥미의 증대를 도모하는 <쌍화점>의 소재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연에 등장하는 술집아비는 다른 여타의 상인들에 비해 보다 더 거칠고 여색을 밝히는 이미지를 가지며, 술집은 일반적으로 유흥의 장소이기에, 술집아비와 술집 모두 성적 담화의 소재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대에도 도회지에는 적지 않은 술집이 존재했었을 것이기에 <쌍화점>의 주요 독자층이 그 존재를 인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4연에서는 술집이라는 사실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거칠고 여색을 밝히는 이미지를 지닌 존재가 등장하여, 그것을 접하는 독자로 하여금 성적 흥미를 보다 더 느끼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쌍화점>의 소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관계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데, 그것들은 모두 당대의 <쌍화점>의 독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적 장소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 다른 하나는 ‘인물’인데, 이 인물들은 모두 이색적이거나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가진다. 이러한 소재들의 설정을 통해 당대의 독자는,

31) 남성의 자위행위를 속어로 ‘용두질 친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용두는 남성기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남성이 갖는 힘과 능력을 암시하는 말로 본다.(김종대,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1, 329-30면 참조)

성관계의 장면을 보다 생생히 떠올릴 수 있는 사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색적이거나 강인한 남성과 상대 여성 간의 성관계를 떠올리면서, 성적인 상상이 주는 재미를 즐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쌍화점>의 소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 이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들이 있다.

쌍화점, 삼장사, 우물, 술집은 모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쌍화점과 술집은 시장에 위치했을 것이고, 우물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이었을 것이다. 또 삼장사에 갇혀가 ‘불을 키러 온다’라는 설정을 보았을 때, 갇히는 연등회, 석가탄신일과 같은 큰 행사 시 또는 그러한 행사 전에 등불을 달러 삼장사에 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연의 배경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된다.

그런데 남녀 간의 성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성행위는 은밀한 것이기에 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밀폐된 공간이 쌍화점, 삼장사, 우물, 술집 모두에 존재한다. 삼장사의 성행위의 공간은 삼장사의 社主의 방 또는 구석방일 것이며, 우물의 성행위의 공간은 우물 속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쌍화점과 술집의 성행위의 공간은 점포에 붙어 있는 상인들의 집의 어느 방³²⁾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쌍화점, 삼장사, 우물, 술집 등을 찾는 사람들이 그 공간의 주인과 사적인 인연이 있지 않은 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화점>의 성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적인 공간에 속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32) 고려시대 개경의 시장의 건물들은 주거와 점포를 겸용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서성호,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00, 99-100면 참조)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의 은밀한 성행위는 그것에 대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흥미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한편 새끼 광대, 새끼 상좌, 두레박, 식구박은 모두 공간적 배경의 주인들인 회회아버, 社主, 우물옹, 술집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반인들과도 빈번한 접촉을 가지는 존재들이다. 먼저 서역악이 당나라 이전부터 서역으로부터 들어와 고려시대에도 존속하고 있어 서역출신 음악인과 연희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³³⁾과 원간섭기에 회회인들이 고려에 상당수 유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끼광대는 회회아버와 마찬가지로 회회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동일한 민족인 회회아버와 새끼광대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으며, 새끼광대는 광대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리고 새끼 상좌는 社主의 제자 또는 그 절의 행자가 되겠는데, 이러한 새끼 상좌는 社主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존재이며 절을 찾는 많은 신도들과 접촉한다. 한편 두레박은 우물 안과 밖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우물 속의 옹과는 물론이고 우물 밖의 사람들과도 접촉이 빈번한 존재이다. 또 식구박은 술집 주인과 술집의 손님 모두와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는 존재이다. 이렇듯 새끼 광대, 새끼 상좌, 두레박, 식구박은 모두 공간의 주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주인들의 사적인 공간에 접근하기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존재이어서, 공간의 주인들의 사적인 사항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트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

또 새끼 광대, 새끼 상좌, 두레박, 식구박은 모두 '조그마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데, 몸집이 작다는 것은 몰래 숨어서 엿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다. 이러한 그들의 외형적인 조건과 앞서 살핀 공간의 주인들과의 밀접

33) 전경욱,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226-8면 참조.

한 관계들로 인해 이 ‘조그마한’ 존재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의 은밀한 성행위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그마한’ 존재들은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린 시절 성행위를 목격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은밀하지만 재미있는 성적 담화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제시는 소문이 쉽게 퍼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조그마한’ 존재들에 의해 은밀한 성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소문의 확산은 곧 그 소문의 성관계가 범상치 않은 것임을 나타낸다.

이렇듯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과 그 속에서의 사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은밀한 성행위의 제시, 그리고 어린 아이의 이미지의 ‘조그마한’ 존재들이 성행위를 몰래 엿보았다는 상황 설정, 또 그들에 의해 퍼진 범상치 않은 성관계와 관련한 소문은, 독자로 하여금 아슬아슬한 재미와 긴장감을 느끼게 하여 독자가 더 큰 성적 흥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쌍화점>은 암시적인 표현, 행간을 통한 사건의 제시, 조흥구를 통한 성행위의 암시 등을 통해 독자가 성행위와 관련한 사건들을 상상하며 성적 흥미를 느끼면서 웃음을 자아내도록 하는 시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상구조를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재들은, 사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이색적인 성행위, 그것에 대한 은밀한 엿보기, 소문 등을 독자가 상상을 통해 그것이 주는 성적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긴밀히 배치되어 있다. 즉 <쌍화점>은 작품 전편에서 시상구조와 소재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성적인 담화가 주는 재미를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쌍화점>의 특성이 오랜 기간 동안의 <쌍화점>의 향유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쌍화점>이 향유되던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관련 기록들을 볼 때, 당대의 독자들은 <쌍화점>에 담긴 ‘성적인 의미’가 주는 재미를 즐기기 위해 <쌍화점>을 향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쌍화점>에서는 독자에게 성적인 담화가 주는 웃음을 주기 위해, 구조와 소재를 긴밀히 상호작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즉 반전의 구조를 통해 대단한 성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설정되어 가던 성행위의 남성주체의 성적 능력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사실적인 인물과 장소를 설정하여 독자로 하여금 성과 관련된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행간의 성적인 사건들을 조흥구의 음성상징을 통해 암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일어난 은밀한 성행위가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에 의해 은밀히 엿보아지게 하고 있고, 또 그에 의해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구조와 소재들을 긴밀히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쌍화점>에서는 구조와 소재가 긴밀히 상호작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독자로 하여금 성적인 흥미를 느끼며 웃음을 자아내도록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쌍화점>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쌍화점>은 독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쌍화점>에 담긴 의미를 더 깊고 넓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향유층과 관련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즉 <쌍화점>이 주는 성적인 의미의 웃음이 당대 향유층들의 성심리의 어떠한 면에 호소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쌍화점> 향유 당대의

성의식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당대에 향유되었던 성을 소재로 한 시가와 육담 또는 성 소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 김대행, 「쌍화점과 반전의 의미」, 김대행 외, 『고려시가의 정서』, 개문사, 1986, 193~207면.
- 김명준, 「〈쌍화점〉 형성에 관여한 외래적 요소」, 『동서비교문학저널』 14,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6, 7-28면.
- 김부식, 이재호 역, 『삼국사기1』, 서울출판사, 1997, 35-37면.
- 김열규, 「鄉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김열규, 정연찬, 이재선,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1, 1-54면.
- 김종대,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1, 302-330면.
- 김창현, 「원간섭기 고려 개경의 사원과 불교행사」, 『인문학연구』 3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89-126면.
- 김쾌덕, 「조선 건국 초 고려 속가 수용 상황과 변개」, 『한국문학논총』 38, 한국문학회, 2004, 31-60면.
- 김형규, 『고가요주석』, 일조각, 1974, 321-326면.
- 나정순, 「고려 가요에 나타난 성과 사회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93-420면.
- 두산엔사이버백과사전(<http://100.naver.com/>)
- 박노준, 「쌍화점고」, 『한국학논집』 1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5-62면.
- 박병채, 『고려가요 어석연구』, 선명문화사, 1968, 239-255면.
- 박종진, 「고려시대 개경 절의 위치와 기능」,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00, 66-91면.
- 볼프강 카이저, 김윤섭 역, 『언어예술작품론』, 예림기획, 1999, 80-83면.

- 사마천, 정법진 외 역, 『사기1-본기』, 까치, 2003, 253-301면.
- 서성호,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 38, 한국역사연구회, 2000, 92-122면.
- 성호경, 「고려시대 시가 작품의 시적 형태 복원」, 『고려시대 시가연구』, 태학사, 2006, 25-51면.
- 신영명, 「<쌍화점>의 어조와 미의식」, 『우리어문연구』 8, 우리어문학회, 1994, 197-218면.
- 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85, 250-273면.
- 엠파스 백과사전(<http://100.empas.com/>)
- 여운필, 「『쌍화점』 연구」,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1984, 61-85면.
- 여중동, 「<쌍화점> 노래 연구」, 김열규·신동욱 편,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I-91~I-103면.
- 이희수, 『한·이슬람 교류사』, 문덕사, 1991, 116-170면.
- 이재현,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익재집 I』, 민족문화추진회, 1979, 207면.
-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1』, 서울출판사, 1997, 303-4면.
- 임재해, 「우리 시대 육담들에 나타난 ‘성’의 형상화와 ‘성’문화의 양상」, 김선풍 외, 『한국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31-79면.
-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226-228면.
- 정출현, 「고려가요의 층위와 그 전승양상」, 『민족문화사연구』 13, 민족문화사학회, 1998, 174-206면.
- 최미정, 『고려가요의 전승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191-205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13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11~322면.
- 허남춘, 「<쌍화점>의 우물 용과 샷기광대」, 『반교어문연구』 2, 반교어문학회, 1990, 154-178면.

ABSTRACT

The Meaning on Structure of Poetic Aspect and Subject Matters in
Ssanghwajeom

Hwang-Bo, Kwa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make a close inquiry into structure of poetic aspect in *Ssanghwajeom* not getting an interest from the existing researches on *Ssanghwajeom*, and to examine meaning of subject matters in *Ssanghwajeom*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about the basic frame of *Ssanghwajeo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structure of poetic aspect in *Ssanghwajeom* repeating the same structure every stanza was set up readers to feel fun by imagining sexual behaviors in the work which made suggestive expressions, showed events of space between lines and presented phrases adding to the fun giving a hint of situations related to sexual relations.

The subject matters of *Ssanghwajeom*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above structure of poetic aspect are closely arranged to make readers imagine and enjoy unusual sexual behaviors based on realistic background, stealing a secret glance at them and rumors.

As above, *Ssanghwajeom* made readers enjoy the fun from sexual talks by making reciprocal action between its structure of poetic aspect and its subject matters over the total work.

Key Words *Ssanghwajeom*, structure of poetic aspect, phrase adding to the fun, subject matter, suggestion, sex, laugh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